

1. 이슈 현황

▶ (미국의 TPP 탈퇴로 멕시코 경제에 대한 우려 확산)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TPP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음. 그 결과, TPP 발효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했던 멕시코, 베트남 등의 경기 둔화와 투자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의 TPP 탈퇴 결정

- 2015년 10월 협상 타결에 성공한 데 2016년 2월 협정문 서명까지 완료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함.
 - TPP에는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주변 12개국¹⁾이 1차 가입국으로 참여했으며 그 중 미국의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임.
 - 본래 TPP의 전신은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등 4개국이 참여하는 'Pacific 4'였으나 2006년 미국의 요청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전 세계 GDP 37%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됨.
- TPP는 12개국의 상이한 경제 규모, 발전 단계, 산업구조 차이 등을 반영해 회원국 간 생산분업 효과 극대화과 글로벌가치사슬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만큼 국가별 이해관계가 엇갈렸음.
 - 각국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협정인 만큼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은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였고, 멕시코와 베트남, 페루 등은 제조업 분야의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가 형성되었음.
 - 특히, 멕시코의 경우 글로벌가치사슬(GVC) 고도화로 일본, 베트남 등과의 중간재 교역이 늘어나면서 NAFTA만으로는 누적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기에 TPP 발효에 대한 기대가 특히 컸고,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역시 증가하였음.

□ 멕시코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멕시코 경제의 성장 잠재력 및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임.
 - 멕시코는 자동차, 전자 등에 특화된 자국의 제조업 기반과 미국시장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TPP의 제조업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었음.
 - 산유량 감소, 대미 의존도 심화 등의 악재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제조 경쟁국인 중국의

1)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가나다순)

인건비 상승이란 호재가 겹치면서 TPP는 멕시코 제조업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음.

- 이런 불안감을 반영해,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멕시코 페소화는 줄곧 약세를 나타내 11월 8일 달러 당 18.62페소에서 2017년 1월 19일에는 21.96페소로 20% 가까이 절하됐음.
- 페소화의 절하 추세는 1월 말 이후 다소 진정된 상황임. 그러나 멕시코에 대해 실제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거나 NAFTA 재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강행될 경우 페소화의 추가 약세는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 페소화 약세가 진정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페소화 약세로 4분기 이후 멕시코 수출이 늘어나고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임.

2. 원인과 분석

▶ (비교우위 기반의 글로벌 생산분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선언한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의 회귀’ 방침은 글로벌 생산분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다자간 FTA 움직임을 상당 부분 후퇴시킬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멕시코를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해온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비교우위 기반의 글로벌 생산 분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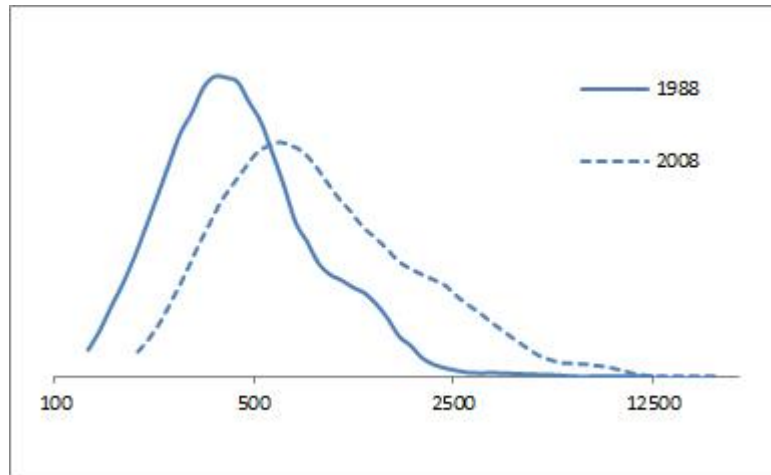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 경제통합 등의 세계화는 각국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별 분업’을 확대했음.
-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장기간의 고성장을 경험했으며, 특히 후발 신흥국들로 전통 제조업이 이전되면서 ‘국가 간 불평등’이 크게 개선됐음.
- 1988년과 2008년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분포 곡선을 비교해보면 20년 새 오른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²⁾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음. (그림 1)
-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이와 같은 세계화를 통해 경제 전체로는 성장하였지만, 비교우위 부문과 비교열위 부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양극화, 즉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됐음.
- 미국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단봉낙타 형태에 가까웠던 1970년과 달리 2014년에는 저소득 구간과 고소득 구간 사이가 멀어지면서 쌍봉낙타 형태가 확연해졌음³⁾.

2) Larkner와 Milanovic(2015)

3) 심순형, 김형주(2016)

그림 1. 아시아 신흥국의 소득 분포 곡선 변화

(단위: 2005년 PPP달러 기준)



자료: Lakner C. and B. Milanovic, 2016,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 그 결과, 미국 중부 지역(Rust Belt) 등 그동안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인식한 유권자들이 트럼프, 샌더스 등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후보자들을 대거 지지하기 시작하였음.
- 이와 같은 세계화에 대한 반발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브렉시트를 통과시킨 영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임.
- 프랑스의 국민전선(FN),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 이탈리아 오성운동(M5S) 등

□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의 회귀’ 선언⁴⁾

- 2016년 미국 대선을 통해 일자리 감소, 불평등 확대, 중산층 몰락 등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의 부작용이 표면화되었고, 트럼프의 승리를 통해 미국 내 다수 유권자가 현재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임.
- 이런 맥락에서 참여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양자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힘.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전통 제조업 우대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무역질서 역시 기존의 ‘자유무역’ 원칙 대신, ‘공정한 자유무역(fair free trade)’, 즉 미국 기준의 공정성(fairness)을 앞세운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4) 김형주, 심순형(2017)

□ 멕시코 진출 기업들의 피해 증가 불가피

- 이 과정에서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멕시코를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해온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멕시코는 TPP 내에서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후방참여도가 높은 반면 전방 참여도가 낮은 편이어서⁵⁾ 미국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후방 참여도(backward engagement)는 자국의 총수출 대비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을 의미하며, 전방 참여도(forward engagement)는 타국의 총수출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 비중을 의미함.
 - 즉, 멕시코의 수출은 최종재 비중이 높아서 한국, 중국 등 타국으로부터의 중간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반면, 미국 이외에 다른 시장으로의 대체가 어려움.
-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8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데다 특정 품목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음⁶⁾.
 - 1995년에서 2015년 사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그중 7개가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음.
- 한국기업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기업들이 입게 될 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정해보면, 일정 수출액 당 피해 규모가 멕시코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우회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수혜율’은 각각 2.0%, 15.9%로 멕시코의 대미수출에 의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혜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임.
 -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한국의 부가가치는 2014년 기준 각각 34억, 22억 달러로 중국에서 훨씬 크게 발생했는데, 이는 두 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 차이가 워낙 커서 생긴 결과임.

3. 전망과 시사점

- ▶ (선부른 결정보다 미국 제조업 정책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TPP 무산, 트럼프의 통상 압력 강화 등으로 멕시코의 투자 매력도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 폐소화 약세, 추가적인 인건비 감소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5) 제현정, 장상식 (2016)

6) 김형주, 심순형(2017)

□ 선부른 결정보다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 가능성 분석에 집중

-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와 통상 압력 강화 가능성 등으로 멕시코의 투자 매력도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제조업 정책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 미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가 어느 정도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변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협상용 카드인지 실제 카드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임.
- 미국 전통제조업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비교우위 격차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성 유권자 달래기용으로 끝날 수 있으며, 국제 무역 및 투자 질서를 과거로 후퇴시키지 않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상당할 것임.

□ 멕시코의 국내외 환경 변화도 중요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음.
- 멕시코 정부와 국민의 제조업 육성 의지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특히 전방 참여도를 높이고 수출품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최근 나타나고 있는 폐소화 약세 및 임금 하강 추세 등이 멕시코 제조업 부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임. **EMERiCs**

출처

- 제현정, 장상식 (201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 서명',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년 2월 4일 Vol.1,
- 심순형, 김형주 (2016), '세계화의 그늘 선진국에서 더 짙다', LG경제연구원, 2016년 8월 22일,
- 김형주, 심순형 (2017),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 투자 질서', LG경제연구원, 2017년 2월 13일,
- Lakner C. and B. Milanovic (2016),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